



빅토리아 한인전주교회

VICTORIA KOREAN CATHOLIC CHURCH

제15권

2024년03월28일(나해)

4040 Nelthorpe St. Victoria BC V8X 2A1

2024년 <사목목표>-자비의 해

[주님, 당신은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십니다.(시편 86.15)]

주일 미사 : 빅토리아: 일요일 3PM
나나이모: 토요일 3PM
평일 미사 : 수요일 7:30PM(빅-성당)
목요일 10:30AM(빅-성당)
고해 성사 : 미사 30분전

주임신부 : 유영진 로베르토 ☎ 778-966-3689
카카오톡 ID-ryu0758
사목회장 : 박정수 안드레아 ☎ 613-661-4060
성당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hsaem>
주소 : 6234 Spartan Rd, Nanaimo, BC V9T 2N9

2024년 3월 28일 [(백) 주님 만찬 성목요일]

오늘은 성 목요일입니다. 이 미사에서 성체성사의 신비와 사랑의 새 계명을 묵상하고, 발 씻김 예식에 참여하며,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합시다. 수난 감실로 옮겨 모신 성체 앞에서 밤새 깨어 조배 하며, 당신 자신까지 내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시다.

<전례 순서>

▣ **입당송:**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리라. 주님은 우리 구원이요 생명이며 부활이시니,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구원과 자유를 얻었네.

▣ **입당 성가 119**(주님은 우리 위해)

▣ **제1독서**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12,1-8.11-14

& 화답송

◎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네.

○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

○ 주님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1,23-26

&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1-15

▣ **봉헌 성가 212** (너그라이 받으소서)

▣ **영성체송 :**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 **성체 성가 182**

▣ **퇴장** 성가 없음. 영성체 후 모든 신자들은 성체 거동 행렬을 따라 수난 감실로 이동.

▣ 신자분들께서는 수난 감실에서 성체 조배 후 귀가 하시면 됩니다.

성주간

‘성주간’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부터 ‘성토요일’까지의 한 주간을 말한다. 예수님이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교회의 전례주년 가운데 가장 경건한 때이다.

이 기간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수난과 죽음을 통하여 이룩하신 하느님의 구원 신비를 특별한 방식으로 기념한다. 곧 전례주년 전체의 정점을 이루는 성주간의 전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도록 해 준다.

성주간의 첫날인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이날 교회는 미사 전에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환영한다는 상징적 행위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을 거행한다. 성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특별한 예식이 없다.

성주간 목요일 오전에는 각 교구의 주교좌성당에서 교구장 주교의 주례로 사제들이 모두 모여 ‘성유 축성 미사’를 봉헌한다. 이 미사 중에는 사제들이 사제품을 받을 때 한 사제직에 대한 서약을 공적으로 새롭게 하는 ‘사제 서약 간신’이 있다. 그리고 이날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체성사를 기념하는 ‘주님 만찬 미사’를 봉헌한다. ‘재의 수요일’에 시작한 사순 시기는 이 미사 직전에 끝난다.

‘주님 만찬 미사’가 끝나면 성체를 수난 감실로 옮기고 제대포를 벗긴다. 또한 제대 중앙의 십자가를 치우거나 천으로 가린다. 신자들은 수난 감실에 모신 성체 앞에서 조배하며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한다.

▶ 성삼일 미사 전례 안내

3월 28일(목)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오후 9시)

독서:최대곤 베네딕토, 유현자 글라라

3월 29일(금) -주님 수난 성 금요일

-십자가의 길기도(오후 6시 30분)

-성 금요일 수난 예식(오후 7시)

독서: 원경순 글라라, 김영희 마리나

수난복음: 이석태 요셉, 유현자 글라라

파스카 성삼일

‘파스카 성삼일’은 한 해의 전례주년에서 가장 거룩하고 뜻깊은 기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는 삼 일 동안을 말한다. 곧 “주님 수난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은 주님 만찬 저녁 미사부터 시작하여 파스카 성야에 절정을 이루며 부활 주일의 저녁 기도로 끝난다”(「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 규범」, 19항). ‘파스카’는 본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축제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내려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를 떠나기 전날 밤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뒤 허리에 띠를 두르고 쓴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이집트를 떠날 준비를 하였다. 그날 밤 짐승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렇지 않은 집은 맏아들이 모두 죽는 참변이 일어났다. 이에 놀란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다(탈출 12,1-42 참조).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인도로 이루어진 이 사건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건너감’을 뜻하는 단어인 파스카(Pascha)를 축제 이름으로 삼았다. 이후 파스카 축제는 민족의 잔치로 자리 잡았다.

구약의 파스카는 신약의 파스카인 부활을 미리 보여 준 사건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당신의 파스카 신비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느님을 완전하게 현양하는 업적을 이루셨다. 곧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우리 생명을 되찾아 주셨다”(「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 규범」, 18항).

오늘의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에 새로운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부활 대축일 미사 전례 안내

부활 성야 미사 복사 연습: 3월 30일 오후1시

복사-향 복사-윤지황, 김찬욱

시종 복사-김대현, 김재휘

3월 30일(토)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미사

(밤 10시30분-빅토리아)

1독서: 김영희 마리나, 3독서:서승희 안젤라

5독서: 원경순 글라라, 7독서:이석태 요셉

서간: 최대곤 베네딕토

3월 31일(일)-부활 대축일 낮 미사 - 3PM:나나이모

		제1독서	제2독서	복사	반주
3월 28일 주님만찬성목요일	빅토리아	최대곤 베네딕토	유현자 글라라	김대현, 윤지황	
3월 29일 주님수난성금요일	빅토리아	원경순 글라라	김영희 마리나	김대현, 윤지황	
	수난복음	이석태 요셉	유현자 글라라		